

범 죄 개 요







I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¹ 추이²

가. 전체범죄³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 2022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575,007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061.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 대비 21.6%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체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교통범죄⁴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301,262건(전체범죄의 82.6% 비중)으로, 인구 10만명당 2,529.7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9.7% 증가, 지난 10년 대비 9.0%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이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 1,123.2건에서 2022년 532.2건으로 지난 10년간 52.6%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체범죄의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8.8%에서 2022년 17.4%로 11.4%p 감소하였다.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

2 2014년 형법범 분류기준을 개편('2015 범죄분석')함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대한 연도별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0년치 자료에 적용. <표 1>에서 제시된 각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비 수치는 '2015 범죄분석' 이전에 발간된 '범죄분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형법 범죄분류기준은 <부록 1> 참조)

3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 교통사고 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포함되며, 기타 교통범죄에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이 포함

표 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⁵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⁶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1,996,389	3,903.7	-	1,421,991	2,780.5	-
2014	1,933,835	3,767.6	-3.5	1,359,632	2,648.9	-4.7
2015	2,020,731	3,921.5	0.5	1,423,258	2,762.0	-0.7
2016	2,008,290	3,884.8	-0.5	1,407,320	2,722.3	-2.1
2017	1,824,876	3,524.4	-9.7	1,294,926	2,500.9	-10.1
2018	1,738,190	3,353.9	-14.1	1,304,840	2,517.7	-9.5
2019	1,767,684	3,409.2	-12.7	1,361,661	2,626.2	-5.6
2020	1,714,579	3,308.1	-15.3	1,337,162	2,579.9	-7.2
2021	1,531,705	2,966.2	-24.0	1,191,228	2,306.8	-17.0
2022	1,575,007	3,061.9	-21.6	1,301,262	2,529.7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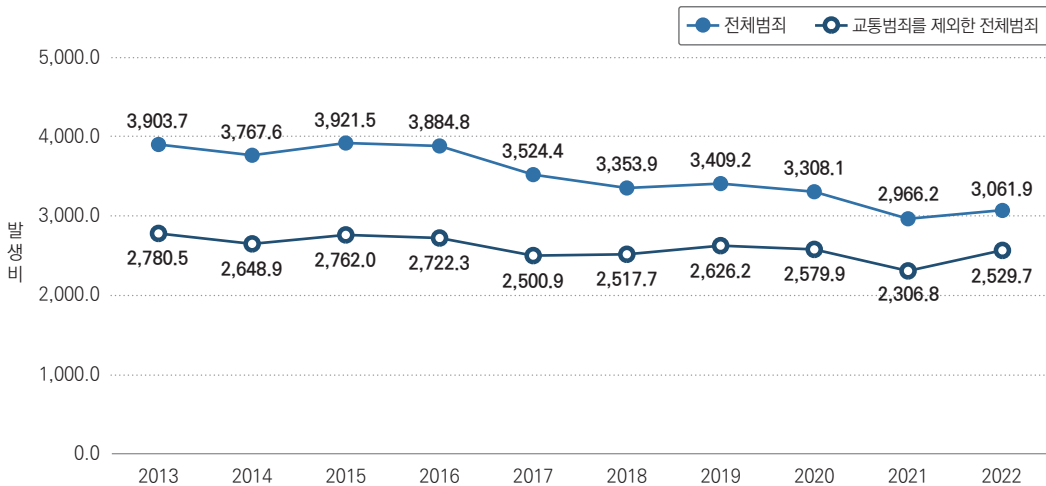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5 표에 제시된 2013년의 범죄 발생건수는 『2015 범죄분석』 발간과정에서 오류를 정정한 수치

6 증감률은 기준년도인 2013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



나.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1) 형법범죄⁷와 특별법범죄

- 2022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1,003,883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951.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형법범죄 발생비는 2021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5.5%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이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2022년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는 571,124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110.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특별법범죄 발생비는 2021년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9.6%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특별법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최근 10년간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7 형법범죄에는 형법 각 장의 범죄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이 포함('일러두기'의 범죄분류체계 참조)

표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건, 발생비, %)

연도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1,056,704	2,066.2	-	939,685	1,837.4	-
2014	1,016,209	1,979.8	-4.2	917,626	1,787.8	-2.7
2015	1,047,761	2,033.3	-1.6	972,970	1,888.2	2.8
2016	1,005,689	1,945.4	-5.8	1,002,601	1,939.4	5.6
2017	958,865	1,851.9	-10.4	866,011	1,672.5	-9.0
2018	988,398	1,907.1	-7.7	749,792	1,446.7	-21.3
2019	1,041,395	2,008.5	-2.8	726,289	1,400.8	-23.8
2020	1,044,438	2,015.2	-2.5	670,141	1,293.0	-29.6
2021	917,787	1,777.3	-14.0	613,918	1,188.9	-35.3
2022	1,003,883	1,951.6	-5.5	571,124	1,110.3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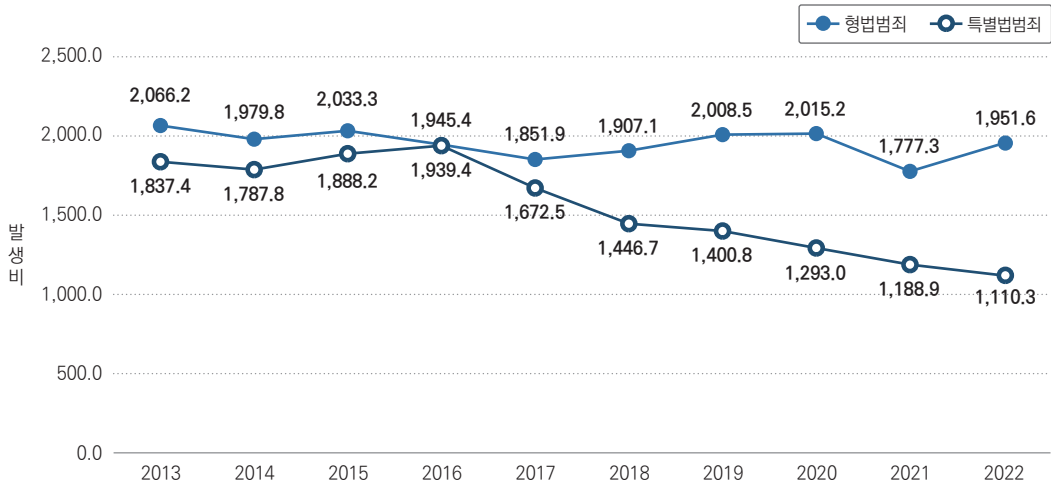


그림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2) 주요 형법범죄⁸

- 2022년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634,864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234.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대비 5.4%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재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18년 이후로는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감소한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 2022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건수는 43,927건으로, 인구 10만명당 85.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25.5% 증가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은 29.3%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2022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건수는 190,870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71.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0.1%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 재산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5.4%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20.1%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대체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8 주요 형법범죄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 형법범죄 분류체계 참조

표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건,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667,214	1,304.6	-	33,787	66.1	-	237,553	464.5	-
2014	617,119	1,202.3	-7.8	34,126	66.5	0.6	233,655	455.2	-2.0
2015	622,126	1,207.3	-7.5	35,139	68.2	3.2	248,707	482.7	3.9
2016	573,445	1,109.3	-15.0	32,963	63.8	-3.5	251,889	487.2	4.9
2017	542,336	1,047.4	-19.7	36,030	69.6	5.3	238,789	461.2	-0.7
2018	576,937	1,113.2	-14.7	35,272	68.1	3.0	233,392	450.3	-3.0
2019	627,430	1,210.1	-7.2	35,066	67.6	2.4	232,316	448.1	-3.5
2020	659,058	1,271.6	-2.5	32,812	63.3	-4.2	210,241	405.6	-12.7
2021	575,332	1,114.1	-14.6	35,126	68.0	3.0	180,460	349.5	-24.8
2022	634,864	1,234.2	-5.4	43,927	85.4	29.3	190,870	371.1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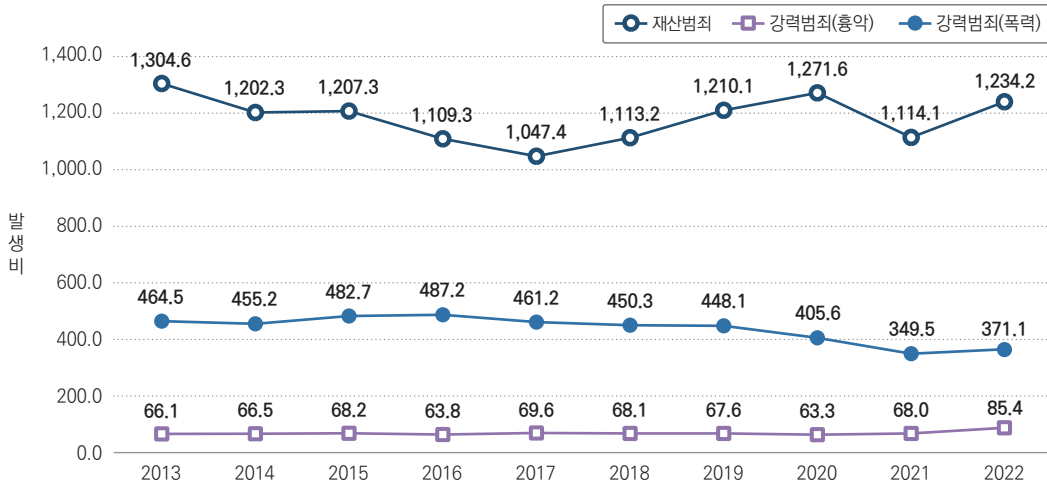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3) 주요 재산범죄

- 2022년 절도범죄의 발생건수는 182,720건, 인구 10만명당 355.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절도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7.1%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절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2022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329,358건, 인구 10만명당 640.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11.0% 증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20.1%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표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절도			사기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288,757	564.6	-	272,664	533.2	-
2014	266,784	519.8	-7.9	244,008	475.4	-10.8
2015	246,424	478.2	-15.3	257,620	499.9	-6.2
2016	203,573	393.8	-30.3	250,600	484.8	-9.1
2017	184,355	356.0	-36.9	241,642	466.7	-12.5
2018	177,458	342.4	-39.4	278,566	537.5	0.8
2019	187,629	361.9	-35.9	313,593	604.8	13.4
2020	173,650	335.0	-40.7	354,154	683.3	28.2
2021	166,782	323.0	-42.8	297,981	577.0	8.2
2022	182,720	355.2	-37.1	329,358	640.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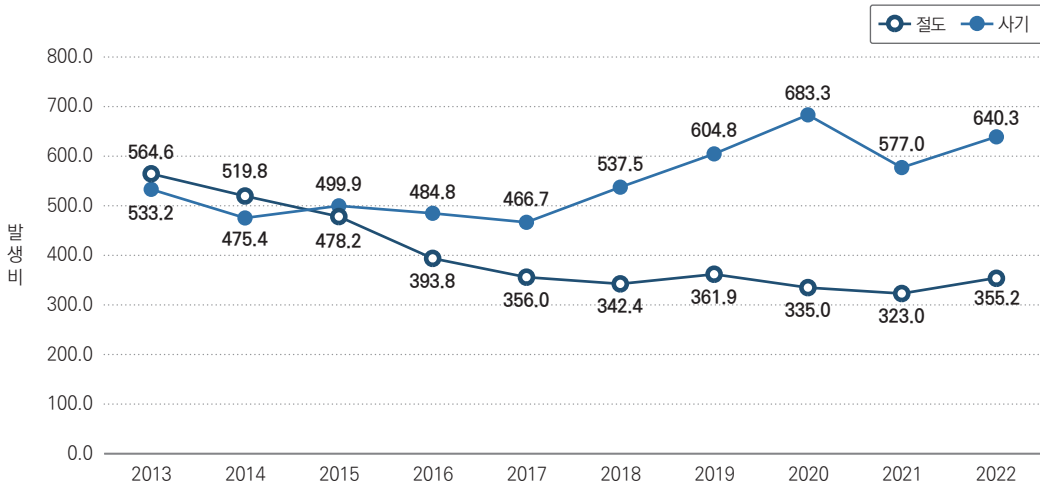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4) 주요 강력범죄

가) 살인범죄

- 2022년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738건, 인구 10만명당 1.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살인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7.1%(0.1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3.5%(0.5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738건 중 살인 기수범죄가 293건(39.7%)이며, 나머지 445건(60.3%)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5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건, 발생비, %)

연도	살인(전체)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13	959	1.9	-	348	0.7	611	1.2
2014	938	1.8	-2.5	366	0.7	572	1.1
2015	958	1.9	-0.9	359	0.7	599	1.2
2016	948	1.8	-2.2	344	0.7	604	1.2
2017	858	1.7	-11.6	287	0.6	571	1.1
2018	849	1.6	-12.6	326	0.6	523	1.0
2019	847	1.6	-12.9	323	0.6	524	1.0
2020	805	1.6	-17.2	339	0.7	466	0.9
2021	692	1.3	-28.5	284	0.5	408	0.8
2022	738	1.4	-23.5	293	0.6	44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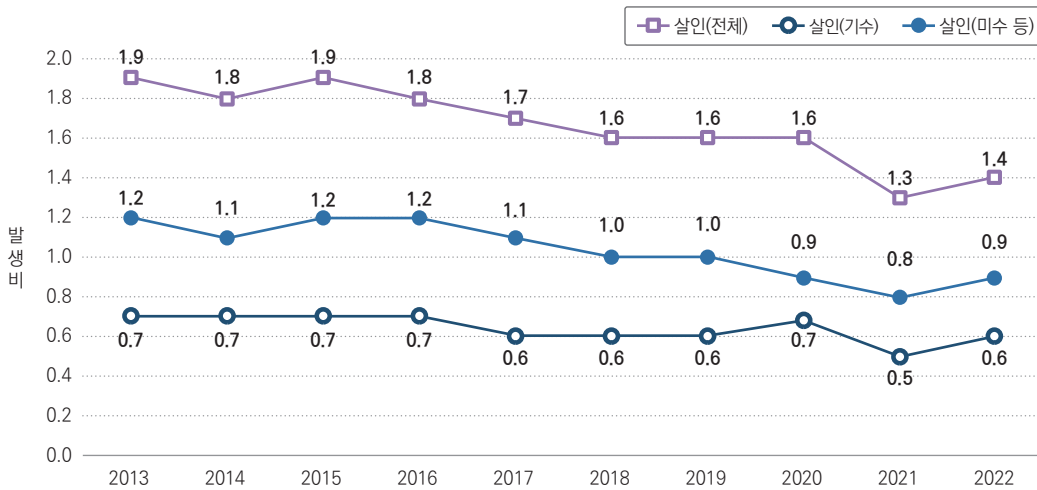


그림 5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나) 강도와 방화범죄

- 2022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는 532건, 인구 10만명당 1.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도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4.5%(0.04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73.6%(2.9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강도 범죄의 발생비는 형법범죄 주요 유형 중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2022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1,224건, 인구 10만명당 2.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19.9%(0.4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9.7%(1.0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강도			방화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2,001	3.9	-	1,730	3.4	-
2014	1,618	3.2	-19.4	1,707	3.3	-1.7
2015	1,472	2.9	-27.0	1,646	3.2	-5.6
2016	1,181	2.3	-41.6	1,477	2.9	-15.5
2017	990	1.9	-51.1	1,358	2.6	-22.5
2018	841	1.6	-58.5	1,478	2.9	-15.7
2019	845	1.6	-58.3	1,345	2.6	-23.3
2020	692	1.3	-65.9	1,210	2.3	-31.0
2021	511	1.0	-74.7	1,025	2.0	-41.3
2022	532	1.0	-73.6	1,224	2.4	-29.7



1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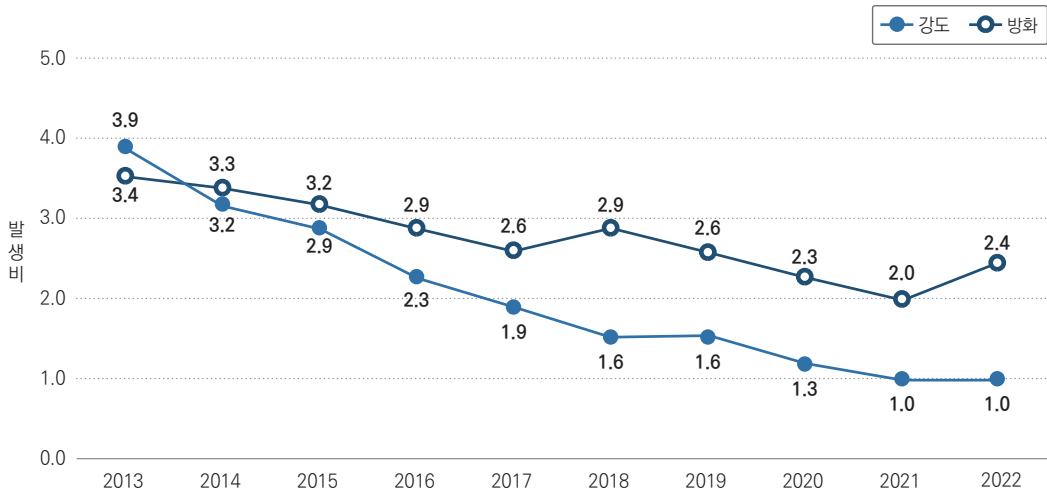


그림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다) 성폭력범죄

- 2022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41,433건, 인구 10만명당 80.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26.4%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41.6%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였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약 1.4배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 발생건수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은 2013년 86.1%에서 2022년 94.3%로 8.2%p 높아졌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29,097	56.9	-
2014	29,863	58.2	2.3
2015	31,063	60.3	6.0
2016	29,357	56.8	-0.2
2017	32,824	63.4	11.4
2018	32,104	61.9	8.9
2019	32,029	61.8	8.6
2020	30,105	58.1	2.1
2021	32,898	63.7	12.0
2022	41,433	80.5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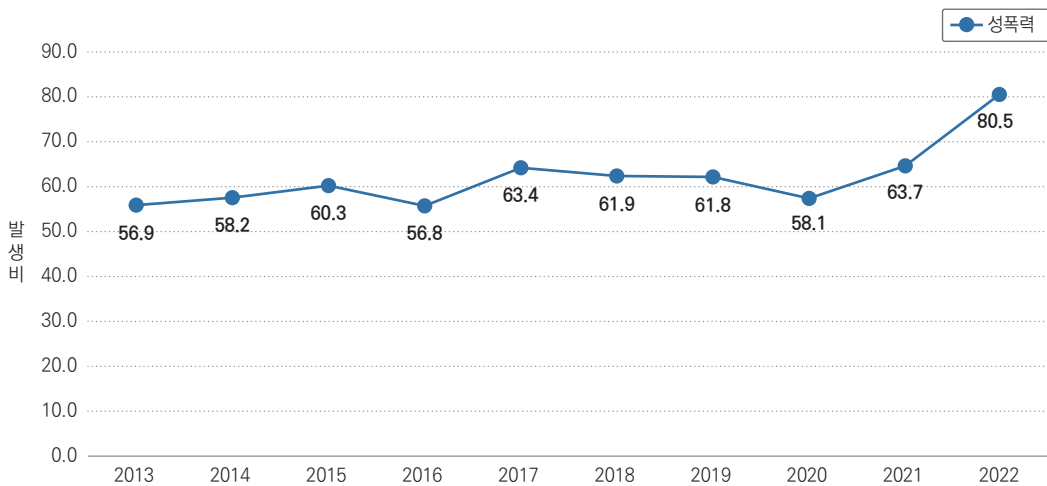


그림 7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 성폭력범죄를 12개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9%를 보였다. 강제추행의 구성비는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에는 36.0%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성폭력범죄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2013년 3.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1.2%로 나타났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구성비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14.7%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제추행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범죄 등의 건수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피해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건(%))

연도	강간	강제 추행	강간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계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1)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	-	29,097
2014	5,092 (17.1)	12,849 (43.0)	622 (2.1)	8 (0.0)	872 (2.9)	123 (0.4)	6,735 (22.6)	470 (1.6)	1,254 (4.2)	1,838 (6.2)	-	-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	-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	-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	-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	-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	-	32,029
2020	5,825 (19.3)	14,486 (48.1)	102 (0.3)	9 (0.0)	574 (1.9)	274 (0.9)	5,005 (16.6)	697 (2.3)	2,070 (6.9)	906 (3.0)	32 (0.1)	125 (0.4)	30,105
2021	5,737 (17.4)	13,156 (40.0)	74 (0.2)	4 (0.0)	558 (1.7)	315 (1.0)	5,686 (17.3)	548 (1.7)	5,079 (15.4)	923 (2.8)	260 (0.8)	558 (1.7)	32,898
2022	6,177 (14.9)	14,908 (36.0)	100 (0.2)	4 (0.0)	516 (1.2)	254 (0.6)	6,082 (14.7)	622 (1.5)	10,605 (25.6)	1,150 (2.8)	171 (0.4)	844 (2.0)	41,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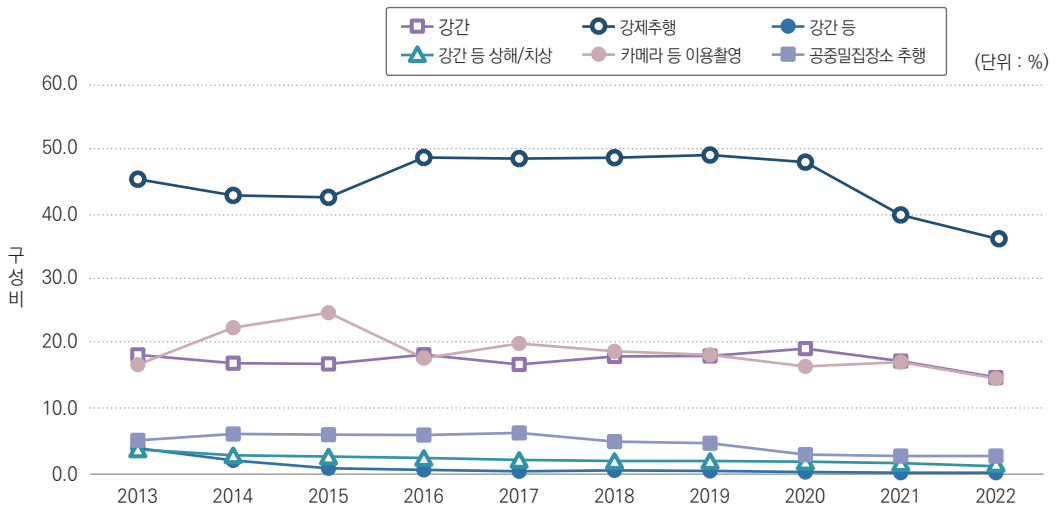


그림 8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13년~2022년)

라) 폭행/상해범죄⁹

- 2022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는 159,741건, 인구 10만명당 310.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7.7%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3	219,805	429.8	-
2014	214,605	418.1	-2.7
2015	226,543	439.6	2.3
2016	228,710	442.4	2.9
2017	215,717	416.6	-3.1
2018	208,935	403.1	-6.2
2019	203,074	391.7	-8.9
2020	180,604	348.5	-18.9
2021	151,586	293.6	-31.7
2022	159,741	310.5	-27.7

9 폭행/상해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과 상해범죄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은 제외



①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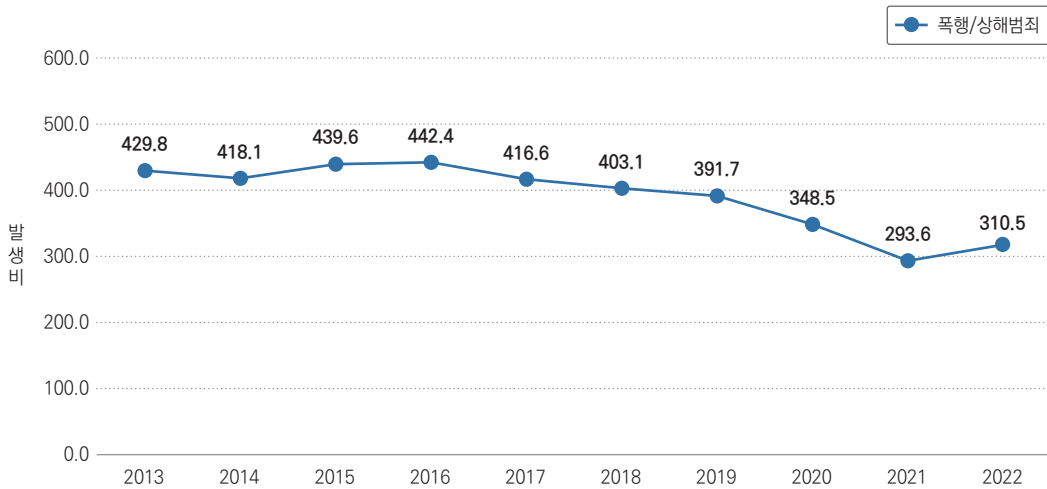


그림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5) 교통범죄¹⁰

- 2022년 교통범죄의 발생건수는 273,745건, 인구 10만명당 532.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21년 대비 19.3%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52.6%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2013년 전체범죄 발생건수(1,996,389건)에서 교통범죄(574,398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였으나, 2022년에는 17.4%로 11.4%p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교통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범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통범죄를 교통사고 범죄와 기타 교통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 555.3건에서 2022년 189.8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65.8% 감소하였다. 기타 교통범죄는 2013년 567.8건에서 2022년 342.4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9.7% 감소하였다.

10 교통범죄 집계기준에 대해서는 [각주 4] 참조

표 10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교통범죄(전체)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13	574,398	1,123.2	-	284,012	555.3	290,386	567.8
2014	574,203	1,118.7	-0.4	298,867	582.3	275,336	536.4
2015	597,473	1,159.5	3.2	320,249	621.5	277,224	538.0
2016	600,970	1,162.5	3.5	307,104	594.1	293,866	568.4
2017	529,950	1,023.5	-8.9	252,383	487.4	277,567	536.1
2018	433,350	836.2	-25.6	223,608	431.5	209,742	404.7
2019	406,023	783.1	-30.3	226,254	436.4	179,769	346.7
2020	377,417	728.2	-35.2	212,593	410.2	164,824	318.0
2021	340,477	659.3	-41.3	178,614	345.9	161,863	313.5
2022	273,745	532.2	-52.6	97,615	189.8	176,130	3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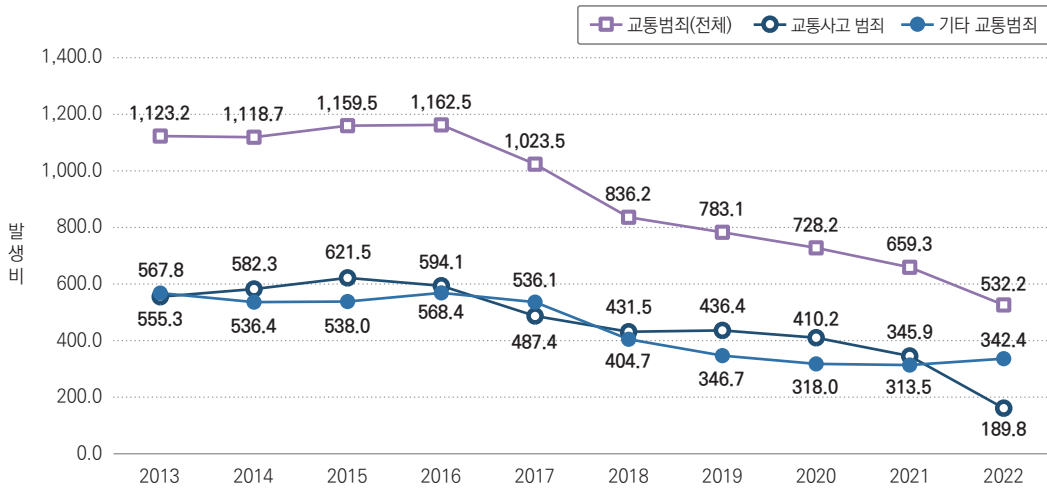


그림 10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다. 연령별 범죄발생비 추이

1) 전체범죄

-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51세~60세 범죄자의 발생비가 인구 10만명당 3,374.1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9세~30세(3,359.5건), 41세~50세(3,329.6건), 31세~40세(3,325.5건), 61세 이상(1,828.3건), 18세 이하(788.0건)의 순이었다.
- 전체범죄의 연령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자(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범죄자의 발생비는 감소한 반면에,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41세~50세의 발생비가 42.5%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3.2% 증가하였다.

표 11 전체범죄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¹¹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발생비)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2013	875.1	4,041.5	4,848.2	5,786.6	5,075.5	1,771.5
2014	786.0	3,826.6	4,761.2	5,631.3	5,235.0	1,939.1
2015	737.4	4,043.1	4,816.7	5,560.1	5,315.3	2,073.3
2016	810.6	4,242.9	5,126.8	5,637.6	5,473.5	2,215.4
2017	799.5	3,949.2	4,588.8	5,023.8	5,059.5	2,173.5
2018	750.3	3,639.9	4,193.2	4,607.0	4,813.3	2,183.9
2019	780.5	3,681.2	4,138.8	4,588.1	4,818.9	2,340.2
2020	785.9	3,553.9	3,788.8	4,089.1	4,413.4	2,218.9
2021	677.2	3,129.6	3,212.2	3,351.6	3,563.2	1,911.3
2022	788.0	3,359.5	3,325.5	3,329.6	3,374.1	1,828.3

1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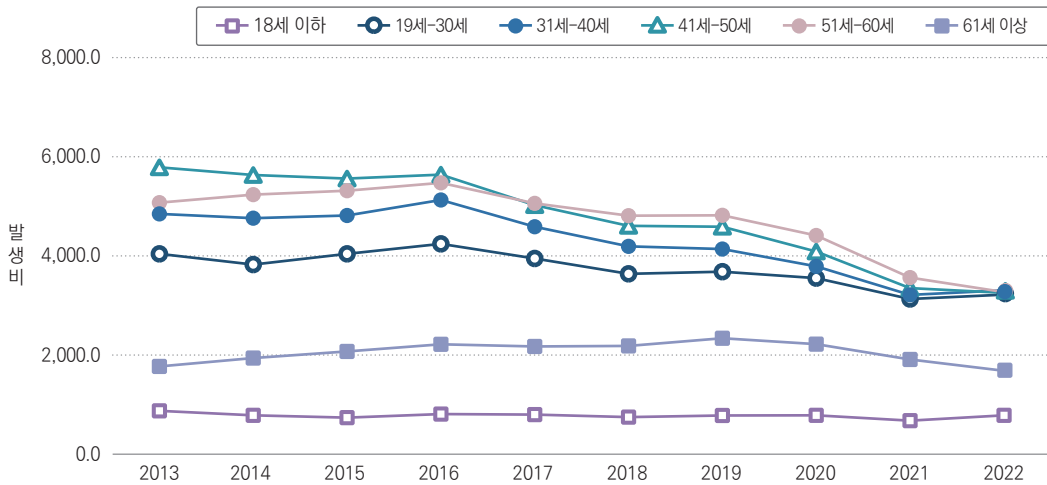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2) 소년범죄

- 소년 재산범죄¹²의 발생비는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430.9건에서 2021년 273.1건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315.3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는 26.8% 감소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4.4건에서 2015년 28.2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6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63.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83.7% 증가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215.4건에서 2015년 181.4건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2년간 증가하였다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후 2022년에는 199.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7.5% 감소하였다.
-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96.2건에서 2015년 89.4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증감을 보이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97.7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1.6% 증가하였다.

12 『2019 범죄분석』 이전의 소년범죄자는 10세~18세를 의미하였으나 『2019 범죄분석』부터 연령집계 시 14세 미만 피의자를 제외하고 작성함에 따라 제시된 2018년부터 소년 재산범죄는 소년범죄자(14세~18세)가 범한 재산범죄를 의미, 이하 소년 강력범죄(흉악/폭력), 소년 교통범죄도 동일



1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피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2022년 강력범죄(흉악)의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가장 낮았지만,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지난 10년간 증감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¹³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3	430.9	-	34.4	-	215.4	-	96.2	-
2014	367.4	-14.7	32.0	-7.0	196.0	-9.0	93.7	-2.6
2015	332.9	-22.8	28.2	-18.1	181.4	-15.8	89.4	-7.1
2016	352.9	-18.1	35.7	3.7	207.7	-3.6	99.4	3.3
2017	319.3	-25.9	38.1	10.6	231.2	7.4	105.8	10.0
2018	300.6	-30.2	39.8	15.7	224.0	4.0	86.7	-9.9
2019	327.6	-24.0	43.2	25.5	219.4	1.9	88.0	-8.5
2020	351.7	-18.4	38.2	11.0	179.7	-16.6	100.7	4.7
2021	273.1	-36.6	45.2	31.4	170.7	-20.8	92.5	-3.9
2022	315.3	-26.8	63.2	83.7	199.2	-7.5	97.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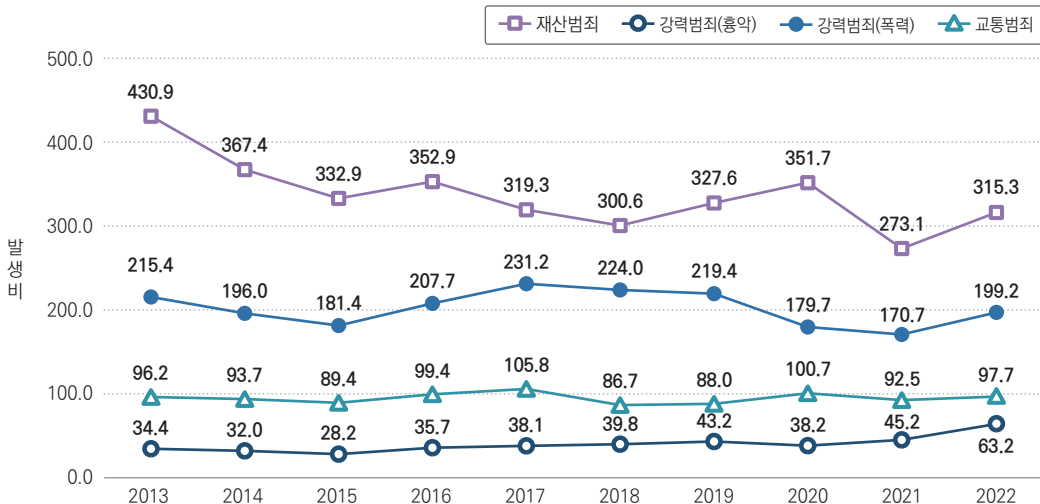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13 소년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18세 이하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임을 유의

3) 고령자범죄

- 고령자¹⁴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3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279.0건에서 2020년 489.8건까지 계속 증가하다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476.3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70.7%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3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7.0건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감소 후 2022년에는 26.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58.1%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3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92.5건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감소 후 2022년에는 237.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3.5% 증가하였다.
-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365.6건에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3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288.3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1.1% 감소하였다.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고령자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교통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은 4가지 범죄군 중에서 발생비가 가장 낮았지만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5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최근 고령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2013년 6,250,986명에서 2022년 9,267,290명으로 48.3%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고령자 인구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가,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을 고령자 범죄 증가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14 만 65세 이상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표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3	279.0	-	17.0	-	192.5	-	365.6	-
2014	315.0	12.9	19.5	14.9	216.9	12.7	444.1	21.5
2015	340.0	21.8	21.6	27.1	240.3	24.8	507.2	38.7
2016	377.4	35.3	23.4	37.8	249.9	29.9	534.0	46.1
2017	395.4	53.4	27.0	101.3	241.8	25.9	502.6	55.6
2018	429.0	66.4	26.5	97.9	253.2	31.8	488.3	51.2
2019	479.9	86.2	29.3	118.5	263.8	37.3	512.5	58.7
2020	489.8	90.0	26.2	95.9	250.2	30.3	481.3	49.0
2021	436.3	56.4	24.4	43.8	227.0	17.9	418.4	14.5
2022	476.3	70.7	26.9	58.1	237.6	23.5	288.3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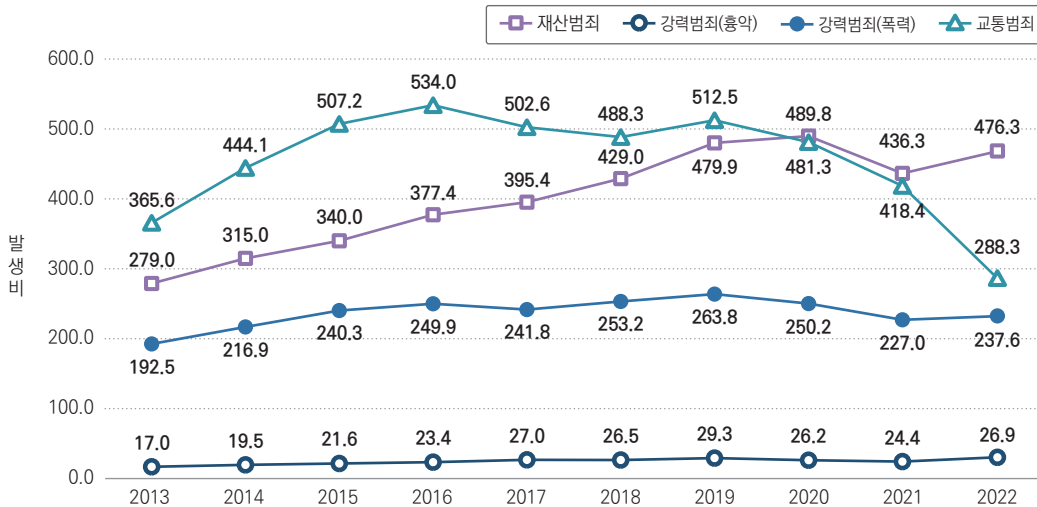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라. 지역별¹⁵ 범죄발생비 추이

- 2022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4,051.9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3,560.5건, 경상남도 3,398.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1,600.5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2,878.1건), 충청북도(2,96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는 21.6% 감소하였으며, 모든 시·도별 발생비 또한 10년 전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3,874.2	3,853.7	3,856.3	3,753.3	3,575.7	3,494.8	3,499.8	3,292.4	2,890.1	3,134.2
부산광역시	4,273.2	4,203.7	4,453.1	4,117.1	3,750.0	3,667.9	3,770.7	3,764.0	3,389.4	3,560.5
대구광역시	4,119.4	4,149.9	4,330.2	3,771.8	3,324.2	3,228.9	3,400.5	3,274.2	3,032.6	3,020.1
인천광역시	3,744.9	3,578.2	3,767.5	3,723.3	3,443.3	3,201.9	3,425.4	3,273.7	2,897.6	3,072.9
광주광역시	4,959.0	4,823.0	4,560.3	4,107.8	3,731.9	3,510.0	3,627.1	3,439.1	3,094.5	3,002.2
대전광역시	3,348.7	3,294.5	3,436.5	3,413.7	3,352.2	3,234.0	3,249.7	3,207.9	2,886.6	3,156.8
울산광역시	4,091.6	3,900.1	2,915.4	2,526.6	2,279.4	2,191.3	2,248.6	2,192.8	2,091.9	1,600.5
경기도	3,583.6	3,584.0	3,776.6	4,113.3	3,572.3	3,287.8	3,274.2	3,198.7	2,860.2	2,878.1
강원도	4,238.5	3,806.9	4,081.5	4,177.2	3,799.7	3,402.0	3,457.0	3,340.9	4,174.3	2,996.3
충청북도	3,299.2	3,195.2	3,679.9	3,880.2	3,571.4	3,355.3	3,362.5	3,226.1	2,943.5	2,966.9
충청남도	3,940.8	3,911.8	3,753.7	3,542.7	3,287.4	3,308.3	3,251.1	3,169.3	2,787.3	2,981.5
전라북도	3,787.6	3,349.8	3,513.2	3,346.5	3,086.3	3,067.9	3,189.4	3,115.7	2,943.0	3,036.7
전라남도	4,538.8	3,771.1	4,174.3	3,926.3	3,407.4	3,501.5	3,669.1	3,642.8	3,284.9	3,385.9
경상북도	3,922.1	3,536.5	3,691.0	3,562.8	3,308.3	3,189.3	3,304.7	3,174.6	2,866.8	3,036.1
경상남도	3,923.4	3,641.1	4,307.5	4,246.8	3,765.6	3,474.9	3,687.4	3,694.6	3,352.3	3,398.5
제주도	5,975.0	5,307.0	5,739.2	5,829.5	5,201.3	4,512.4	4,220.3	4,342.5	3,915.6	4,051.9

15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



①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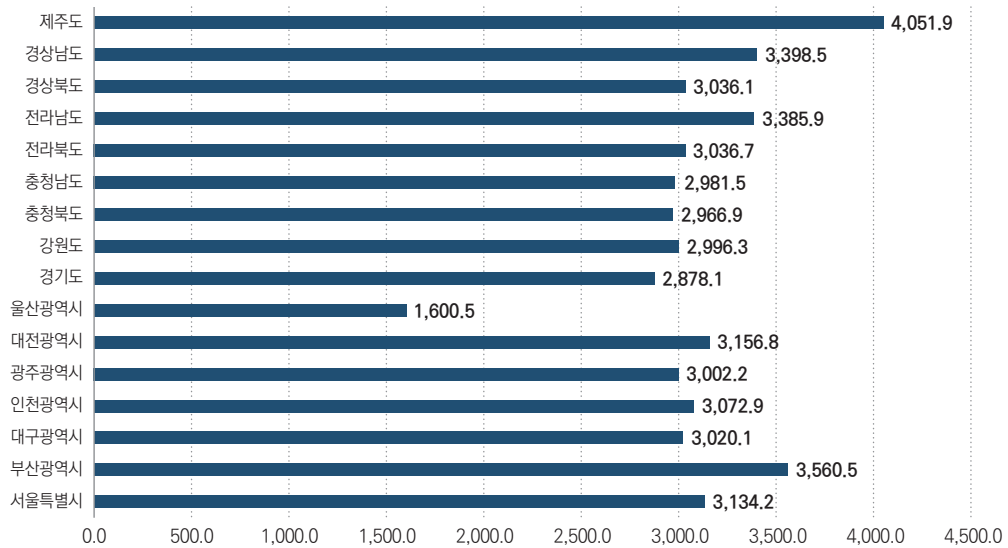


그림 14 2022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 2022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2,808.9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2,331.6건, 대전광역시 2,280.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842.4건이며, 그 다음은 충청남도(1,765.1건), 경기도(1,796.0건) 등의 순이었다.
-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감소하였다.
- 제주도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15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2,332.5	2,347.2	2,367.3	2,280.3	2,173.5	2,186.3	2,265.1	2,193.1	1,886.8	2,176.9
부산광역시	2,476.3	2,309.0	2,326.4	2,199.6	2,152.9	2,205.7	2,373.5	2,473.3	2,137.8	2,331.6
대구광역시	2,082.3	1,964.5	2,041.3	1,827.2	1,738.0	1,799.3	2,006.5	2,016.8	1,873.7	1,981.4
인천광역시	1,885.4	1,775.3	1,905.7	1,953.2	1,872.6	2,000.9	2,145.6	2,078.0	1,791.3	1,950.4
광주광역시	2,533.4	2,407.6	2,255.5	1,943.6	1,801.4	1,926.9	2,080.1	2,012.2	1,800.1	1,860.0
대전광역시	2,100.7	2,025.8	2,120.3	2,000.8	1,917.1	2,008.9	2,051.4	2,102.0	1,894.9	2,280.7
울산광역시	2,031.1	1,971.5	1,264.5	1,184.8	1,115.8	1,158.0	1,144.0	1,199.8	1,093.7	842.4
경기도	1,852.7	1,824.6	1,911.9	1,840.3	1,751.4	1,803.7	1,882.2	1,904.0	1,672.5	1,796.0
강원도	2,059.9	1,799.0	1,860.0	1,890.9	1,824.5	1,758.3	1,870.2	1,821.2	1,617.0	1,808.7
충청북도	1,693.7	1,638.3	1,852.5	1,800.9	1,732.5	1,791.2	1,901.1	1,872.2	1,711.2	1,886.2
충청남도	2,026.0	1,953.2	1,810.2	1,712.0	1,660.0	1,757.6	1,794.9	1,782.4	1,524.4	1,765.1
전라북도	1,943.0	1,654.8	1,826.3	1,702.0	1,566.0	1,678.7	1,736.3	1,800.6	1,683.6	1,823.2
전라남도	1,964.5	1,726.5	1,819.3	1,706.2	1,550.9	1,718.8	1,775.3	1,805.1	1,709.5	1,796.5
경상북도	1,804.9	1,629.2	1,669.6	1,661.7	1,578.9	1,614.0	1,818.5	1,804.9	1,575.7	1,859.1
경상남도	1,921.8	1,819.9	2,129.3	2,006.1	1,906.8	1,939.1	2,099.4	2,238.1	2,002.8	2,107.1
제주도	3,044.4	2,783.4	2,772.9	2,776.4	2,573.2	2,662.5	2,598.4	2,791.0	2,546.8	2,8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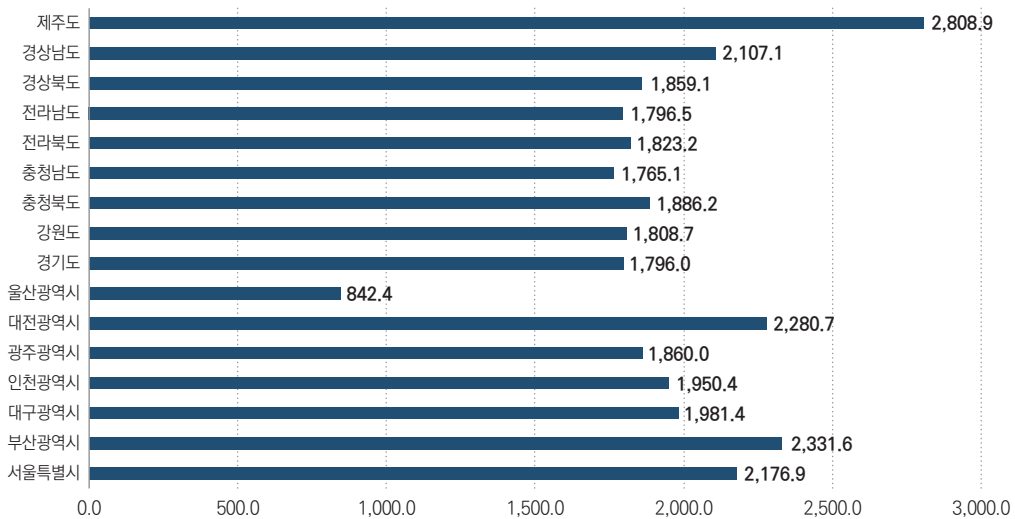


그림 15 2022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2. 범죄자 특성 추이

가. 성(性)

- 전체범죄의 경우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7.6%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21.1%로 지난 10년 동안 3.5%p 증가하였다.
-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3년 20.0%에서 2022년에는 24.2%로 지난 10년 동안 4.2%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흉악)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3년 3.5%에서 2022년에는 4.7%로 지난 10년 동안 1.2%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3년 15.7%에서 2022년에는 18.7%로 지난 10년 동안 2.9%p 증가하였다.
-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3년 13.5%에서 2022년에는 14.3%로 지난 10년 동안 0.8%p 증가하였다.
- 4가지 범죄군에서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였으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모두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2013	17.6	20.0	3.5	15.7	13.5
2014	18.2	20.4	3.3	15.5	14.4
2015	18.4	20.6	3.4	16.0	14.8
2016	18.2	21.1	3.4	16.3	14.8
2017	18.8	21.3	3.6	16.7	15.0
2018	19.7	22.3	4.1	17.1	16.1
2019	20.7	22.8	4.5	18.1	17.5
2020	20.7	22.4	4.9	17.9	17.2
2021	21.2	23.6	5.0	18.6	17.1
2022	21.1	24.2	4.7	18.7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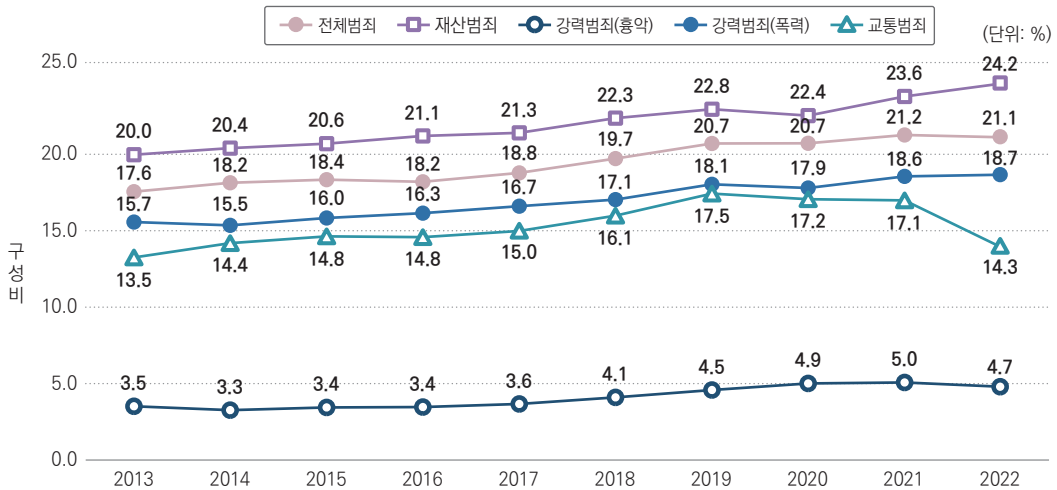


그림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13년~2022년)



나. 연령

- 2022년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0.3%), 19세~30세(19.2%), 61세 이상(17.3%), 31세~40세(16.8%), 18세 이하(4.6%)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19세~30세,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p, 1.7%p, 0.6%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7.1%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17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3	88,731 (4.8)	325,454 (17.5)	395,825 (21.3)	510,441 (27.4)	393,956 (21.2)	145,290 (7.8)	1,859,697
2014	77,594 (4.2)	306,597 (16.6)	381,442 (20.6)	501,527 (27.1)	418,590 (22.6)	165,400 (8.9)	1,851,150
2015	71,035 (3.8)	324,976 (17.2)	376,218 (19.9)	496,000 (26.3)	435,511 (23.1)	185,219 (9.8)	1,888,959
2016	76,000 (3.9)	341,896 (17.3)	393,251 (19.9)	498,953 (25.3)	454,454 (23.0)	209,101 (10.6)	1,973,655
2017	72,759 (4.0)	318,645 (17.5)	345,590 (19.0)	441,295 (24.3)	424,809 (23.4)	215,139 (11.8)	1,818,237
2018	66,142 (3.9)	293,734 (17.2)	308,902 (18.1)	400,370 (23.5)	407,348 (23.9)	227,590 (13.4)	1,704,086
2019	66,247 (3.8)	297,445 (17.3)	300,789 (17.5)	388,899 (22.6)	413,869 (24.0)	256,250 (14.9)	1,723,499
2020	64,480 (4.0)	284,508 (17.8)	267,845 (16.8)	342,322 (21.4)	381,330 (23.9)	256,000 (16.0)	1,596,485
2021	54,017 (4.0)	245,699 (18.4)	220,350 (16.5)	276,978 (20.8)	306,270 (23.0)	231,130 (17.3)	1,334,444
2022	61,026 (4.6)	256,395 (19.2)	223,168 (16.8)	271,002 (20.3)	289,710 (21.7)	230,857 (17.3)	1,332,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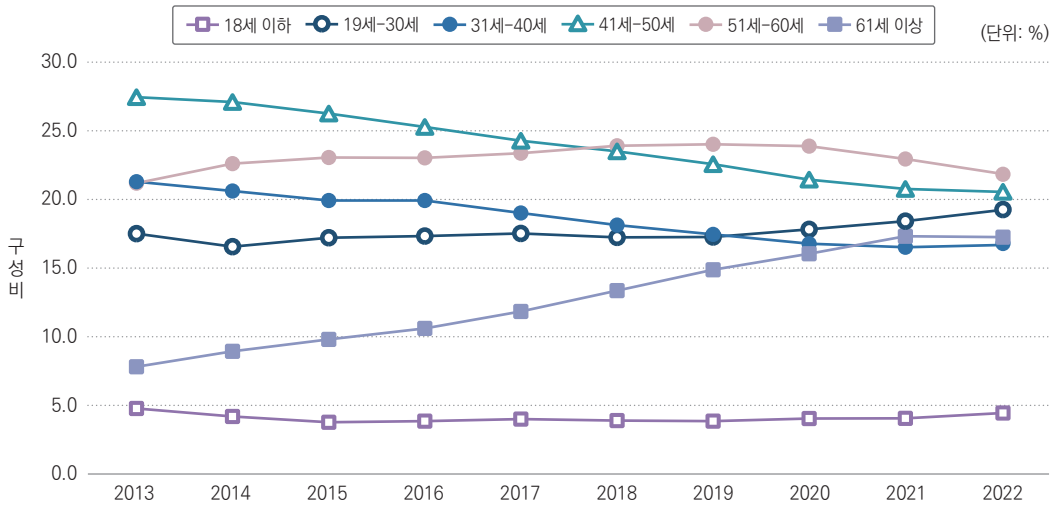


그림 17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 2022년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9세~30세(20.3%), 61세 이상(20.0%), 41세~50세(17.8%), 31세~40세(14.3%), 18세 이하(7.1%)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19세~30세,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6%p, 3.4%p, 0.2%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8.0%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단위: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3	43,698 (10.3)	71,819 (16.9)	81,606 (19.2)	109,350 (25.8)	86,049 (20.3)	31,452 (7.4)	423,974
2014	36,271 (9.0)	64,882 (16.1)	74,472 (18.4)	104,596 (25.9)	88,621 (21.9)	35,211 (8.7)	404,053
2015	32,068 (7.7)	74,537 (17.9)	75,125 (18.0)	103,263 (24.8)	92,454 (22.2)	39,168 (9.4)	416,615
2016	33,088 (7.9)	73,990 (17.6)	73,600 (17.5)	99,612 (23.7)	94,609 (22.5)	45,675 (10.9)	420,574
2017	29,056 (7.2)	72,242 (17.8)	68,547 (16.9)	93,332 (23.1)	92,089 (22.8)	49,502 (12.2)	404,768
2018	26,497 (6.4)	74,295 (17.8)	68,247 (16.4)	94,514 (22.7)	96,872 (23.2)	56,469 (13.5)	416,894
2019	27,809 (6.3)	78,871 (17.7)	70,193 (15.8)	96,831 (21.8)	104,407 (23.5)	66,384 (14.9)	444,495
2020	28,855 (6.6)	84,577 (19.5)	65,093 (15.0)	87,168 (20.1)	98,996 (22.8)	69,804 (16.1)	434,493
2021	21,785 (6.7)	66,852 (20.6)	45,413 (14.0)	59,078 (18.2)	69,765 (21.5)	61,244 (18.9)	324,137
2022	24,414 (7.1)	69,675 (20.3)	48,910 (14.3)	60,936 (17.8)	70,182 (20.5)	68,522 (20.0)	342,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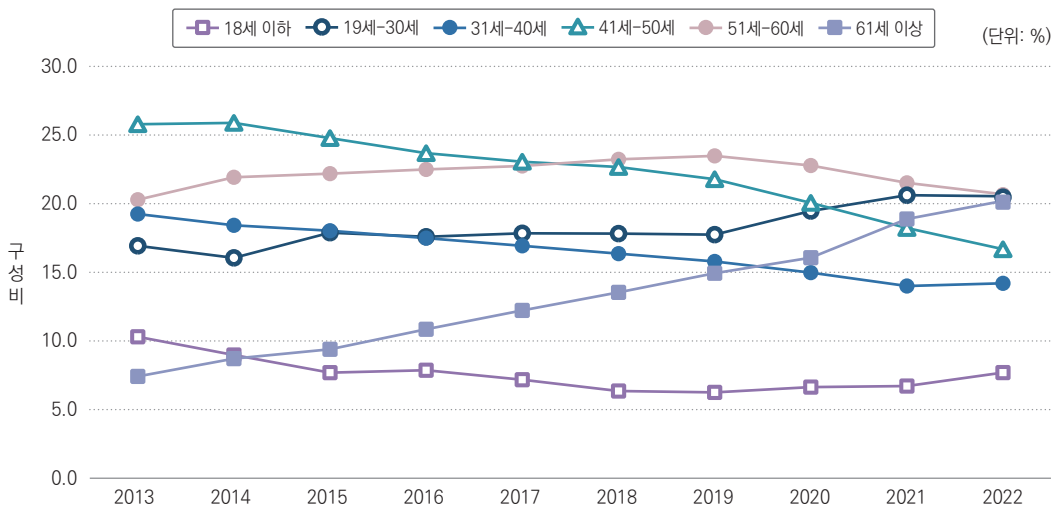


그림 18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 2022년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30세가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1세~40세(17.6%), 41세~50세(13.5%), 51세~60세(12.1%), 18세 이하(11.9%), 61세 이상(9.7%)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9세~30세, 6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p, 3.7%p, 0.1%p 증가하였다. 반면에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8%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19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3	3,488 (11.8)	7,901 (26.8)	6,351 (21.6)	5,984 (20.3)	3,967 (13.5)	1,775 (6.0)	29,466
2014	3,158 (10.6)	7,875 (26.5)	6,151 (20.7)	6,230 (21.0)	4,288 (14.4)	1,993 (6.7)	29,695
2015	2,713 (8.7)	8,414 (27.0)	6,689 (21.4)	6,382 (20.5)	4,671 (15.0)	2,321 (7.4)	31,190
2016	3,343 (10.1)	8,825 (26.6)	6,812 (20.5)	6,456 (19.4)	5,117 (15.4)	2,679 (8.1)	33,232
2017	3,463 (9.5)	10,157 (28.0)	7,281 (20.1)	6,704 (18.5)	5,516 (15.2)	3,169 (8.7)	36,290
2018	3,509 (9.7)	10,275 (28.5)	6,769 (18.8)	6,516 (18.1)	5,660 (15.7)	3,281 (9.1)	36,010
2019	3,665 (9.9)	10,713 (29.0)	6,888 (18.7)	6,255 (16.9)	5,655 (15.3)	3,750 (10.2)	36,926
2020	3,134 (9.0)	10,183 (29.2)	6,560 (18.8)	5,836 (16.7)	5,431 (15.6)	3,723 (10.7)	34,867
2021	3,606 (10.7)	10,772 (31.8)	6,214 (18.4)	5,131 (15.2)	4,640 (13.7)	3,465 (10.2)	33,828
2022	4,893 (11.9)	14,478 (35.1)	7,265 (17.6)	5,579 (13.5)	5,001 (12.1)	3,977 (9.7)	41,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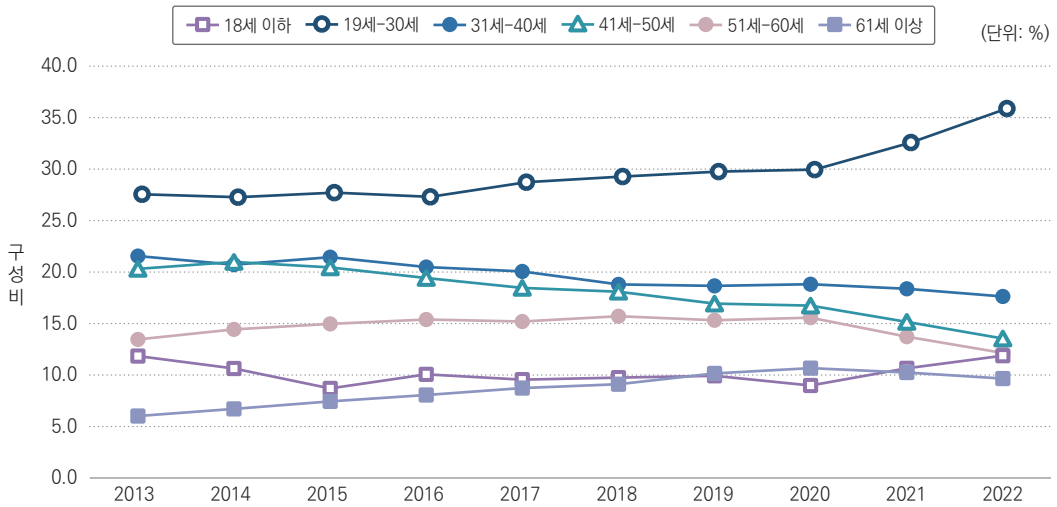


그림 19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 2022년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0.5%), 19세~30세(20.1%), 31세~40세(16.5%), 61세 이상(15.7%), 18세 이하(6.4%)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1%p, 1.2%p 증가하였다. 반면에,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5.6%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20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단위: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3	21,840 (6.4)	70,835 (20.8)	70,049 (20.5)	89,180 (26.1)	66,890 (19.6)	22,400 (6.6)	341,194
2014	19,352 (5.9)	66,930 (20.3)	65,792 (20.0)	83,952 (25.5)	68,775 (20.9)	24,581 (7.5)	329,382
2015	17,473 (5.1)	69,846 (20.5)	66,854 (19.7)	85,878 (25.2)	72,091 (21.2)	27,975 (8.2)	340,117
2016	19,476 (5.6)	71,847 (20.7)	67,700 (19.5)	83,495 (24.1)	73,172 (21.1)	31,172 (9.0)	346,862
2017	21,043 (6.4)	71,206 (21.6)	62,248 (18.9)	75,518 (22.9)	68,168 (20.7)	31,724 (9.6)	329,907
2018	19,742 (6.3)	65,263 (20.7)	57,691 (18.3)	70,394 (22.4)	67,275 (21.4)	34,408 (10.9)	314,773
2019	18,622 (6.0)	63,706 (20.5)	55,356 (17.9)	68,274 (22.0)	66,364 (21.4)	37,790 (12.2)	310,112
2020	14,744 (5.3)	56,781 (20.5)	47,761 (17.2)	59,608 (21.5)	61,219 (22.1)	37,248 (13.4)	277,361
2021	13,614 (5.9)	45,555 (19.8)	38,134 (16.6)	48,013 (20.9)	49,987 (21.7)	34,891 (15.2)	230,194
2022	15,429 (6.4)	48,217 (20.1)	39,660 (16.5)	49,258 (20.5)	50,062 (20.8)	37,745 (15.7)	240,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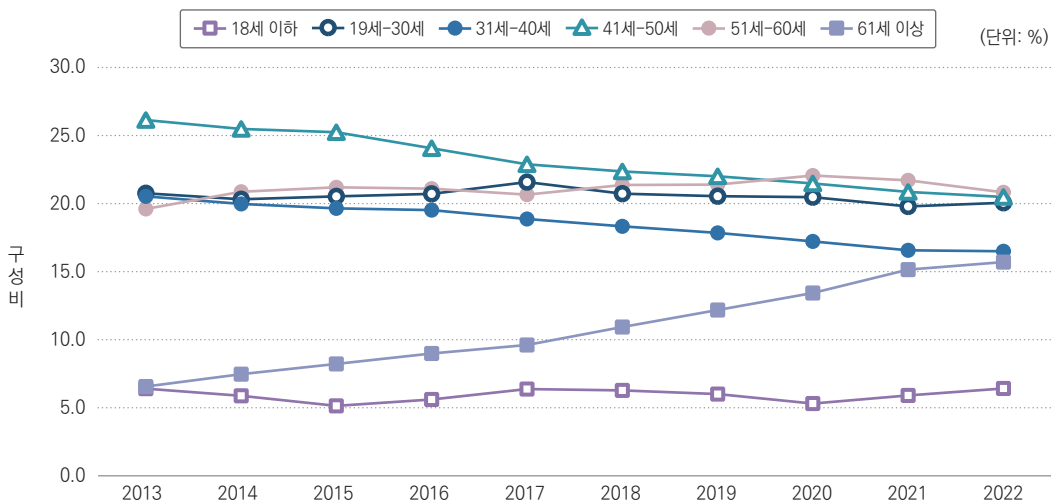


그림 20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 2022년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세~50세(21.2%), 31세~40세(18.6%), 19세~30세(18.3%), 61세 이상(17.2%), 18세 이하(2.8%)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51세~60세, 18세 이하, 19세~3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1%p, 1.9%p, 1.0%p, 0.8%p 증가하였다. 반면에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6%p로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4가지 범죄군 모두 61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31세~40세, 41세~50세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표 21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단위: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3	9,754 (1.8)	94,387 (17.6)	133,254 (24.8)	149,459 (27.8)	107,361 (20.0)	43,322 (8.1)	537,537
2014	9,254 (1.7)	89,780 (16.8)	126,995 (23.8)	144,582 (27.1)	113,215 (21.2)	49,726 (9.3)	533,552
2015	8,610 (1.6)	91,578 (16.7)	124,187 (22.6)	144,868 (26.4)	121,835 (22.2)	58,218 (10.6)	549,296
2016	9,319 (1.7)	93,396 (16.8)	123,352 (22.2)	141,683 (25.5)	123,346 (22.2)	64,232 (11.6)	555,328
2017	9,626 (1.9)	88,174 (17.2)	110,592 (21.6)	124,478 (24.3)	114,689 (22.4)	64,439 (12.6)	511,998
2018	7,641 (1.8)	74,166 (17.0)	89,557 (20.5)	101,039 (23.2)	99,847 (22.9)	64,087 (14.7)	436,337
2019	7,468 (1.8)	70,202 (17.2)	79,039 (19.4)	88,444 (21.7)	93,666 (22.9)	69,441 (17.0)	408,260
2020	8,265 (2.2)	66,918 (17.5)	69,966 (18.3)	79,703 (20.8)	89,251 (23.3)	68,529 (17.9)	382,632
2021	7,375 (2.2)	60,424 (17.8)	60,929 (17.9)	70,480 (20.8)	77,615 (22.9)	62,636 (18.5)	339,459
2022	7,565 (2.8)	49,066 (18.3)	49,856 (18.6)	56,706 (21.2)	58,410 (21.8)	45,881 (17.2)	267,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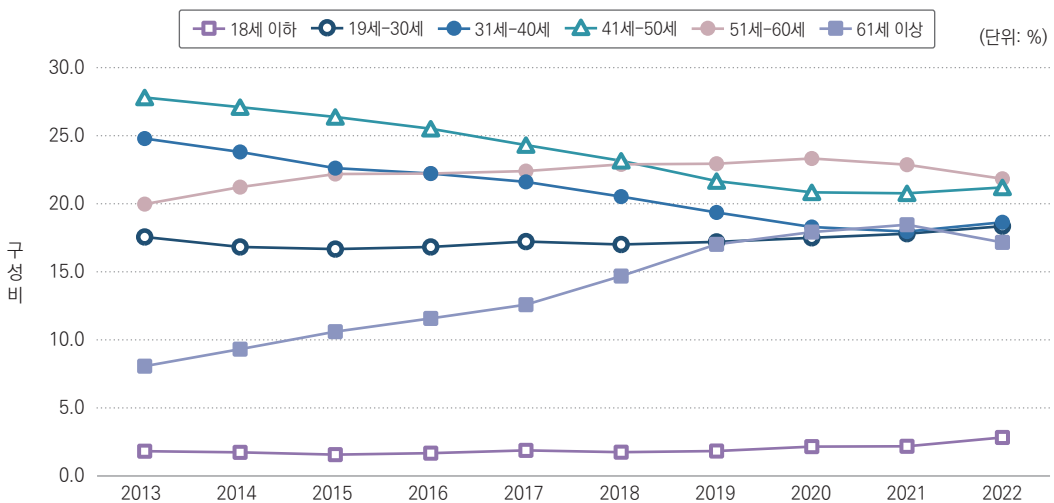


그림 21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다. 전과

- 2022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 벌금형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609,426명으로 전체의 4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5.0%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중은 2013년 46.7%에서 2022년 44.8%로 지난 10년동안 1.9%p 감소하였다.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중은 2022년 25.0%로 지난 10년간 2.7%p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과 미상 범죄자의 비중이 전체범죄자 대비 30%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어,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2 전체범죄의 전과 여부별 분포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명(%))

연도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2013	419,384(22.3)	879,679(46.7)	582,891(31.0)	1,881,954
2014	411,192(21.9)	852,244(45.3)	616,112(32.8)	1,879,548
2015	416,301(21.4)	859,477(44.1)	673,188(34.5)	1,948,966
2016	437,154(21.6)	897,996(44.5)	685,046(33.9)	2,020,196
2017	398,684(21.4)	811,653(43.6)	651,459(35.0)	1,861,796
2018	362,702(20.7)	731,911(41.8)	654,846(37.4)	1,749,459
2019	366,305(20.9)	717,603(40.9)	670,900(38.2)	1,754,808
2020	336,625(20.6)	672,276(41.0)	629,486(38.4)	1,638,387
2021	313,196(23.0)	587,929(43.2)	458,827(33.7)	1,359,952
2022	339,676(25.0)	609,426(44.8)	410,287(30.2)	1,359,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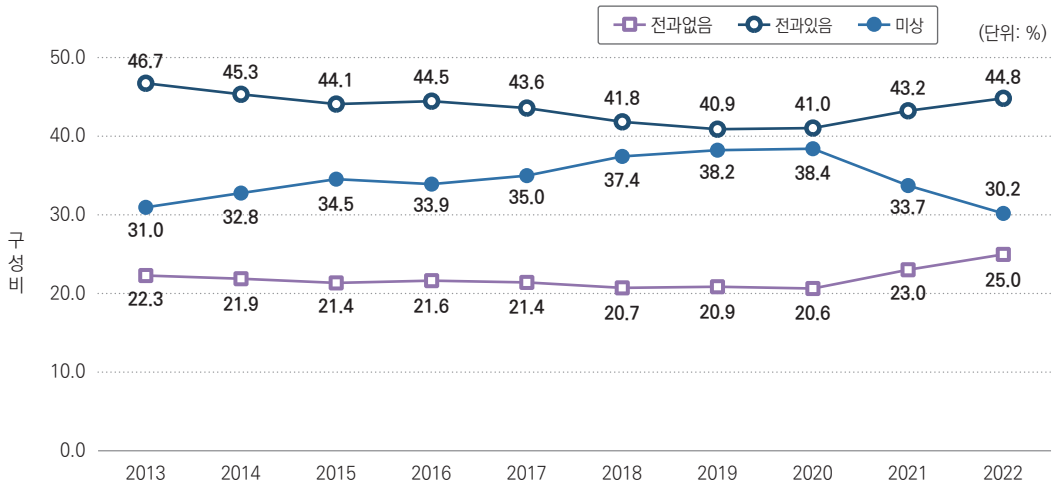


그림 22 전체범죄의 전과 여부별 비율 추이(2013년~2022년)

- 2022년 검거된 재산범죄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5.0%로 지난 10년간 2.4%p 증가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2.5%로 지난 10년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6.5%p 감소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2.5%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2년 검거된 강력범죄(흉악)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36.3%로 지난 10년간 17.3%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9.2%로 지난 10년간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10.7%p 증가하여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24.5%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2년 검거된 강력범죄(폭력)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7.8%로 지난 10년간 3.0%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2.1%로 지난 10년간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1.2%p 증가하여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0.1%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2년 검거된 교통범죄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53.9%로 지난 10년간 4.0%p 증가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0.6%로 지난 10년간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8.0%p 감소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15.4%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3 주요 범죄군별 전과 여부별 비율 추이(2013년~2022년)

(단위 :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2013	18.4	42.6	39.0	32.6	53.6	13.8	20.3	50.8	28.9	26.7	49.9	23.4
2014	19.0	42.6	38.5	34.2	52.3	13.5	19.6	48.3	32.1	26.0	48.0	26.0
2015	19.5	42.7	37.8	34.9	50.5	14.6	19.4	46.6	34.0	24.5	46.5	29.0
2016	20.0	42.9	37.1	35.3	49.1	15.6	19.1	45.4	35.5	23.2	46.7	30.0
2017	20.1	43.0	36.9	35.8	46.3	17.9	19.0	44.1	36.9	23.6	46.3	30.2
2018	19.1	42.2	38.7	33.9	44.5	21.5	18.9	43.5	37.6	23.4	43.8	32.8
2019	19.9	42.3	37.7	33.8	43.6	22.6	19.1	43.7	37.2	22.6	40.2	37.2
2020	19.5	42.6	37.9	32.2	43.8	24.0	18.9	44.6	36.6	22.0	40.6	37.4
2021	22.3	46.2	31.6	37.7	41.1	21.1	21.8	47.8	30.4	23.5	42.4	34.1
2022	22.5	45.0	32.5	39.2	36.3	24.5	22.1	47.8	30.1	30.6	53.9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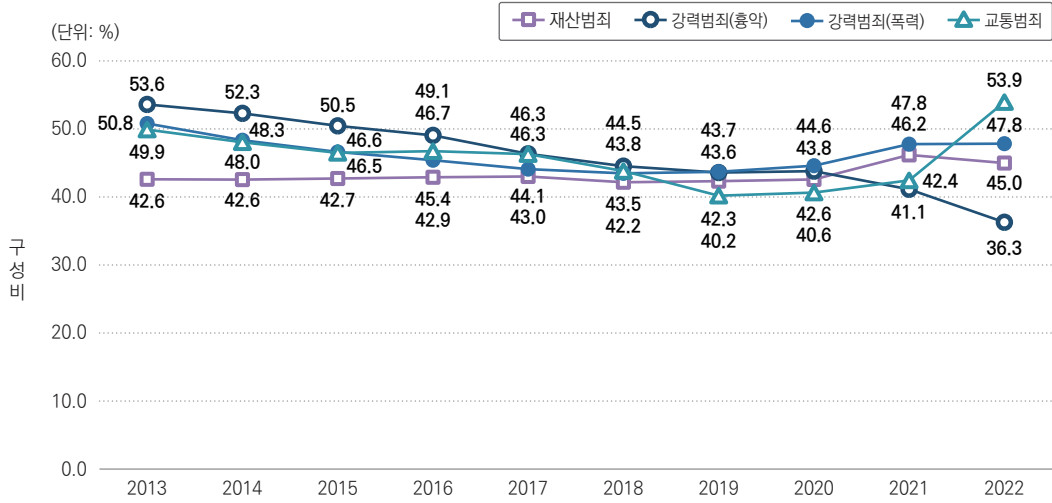


그림 23 주요 범죄군별 전과자 비율 추이(2013년~2022년)